

“원만한 해결 위해 최선 다하자” 합의

‘태고종사’ 관련 조계·태고종 공사 첫모임 태고종 “교정판 제작할 뜻 있다”



〈태고종사〉 발간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계(왼쪽)·태고 양종단 대표가 4월 7일 첫 모임을 가졌다.

조계·태고종 양 종단 관계자가 4월 7일 〈태고종사〉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월 〈태고종사〉 발간으로 갈등을 겪어왔던 두 종단은 이날 서울 삼청동의 한 찻집에서 처음 만났다. 첫 공식 모임인 이날 회동에는 ‘조계종 종단사외교과 종단정통성수호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책위원장 대성 스님을 비롯한 태고종 7인과 태고종 부원장 자철 스님을 비롯해 종단사간행위원회 위원장 수열 스님 등 7인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은 조계종 대책위가 3월 27일 제4차 회의에서 〈태고종사〉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에서 4월 3일 태고종 총무원을 방문하기로 했지만 태고종측이 내부사정을 이유로 날짜와 장소를 변경해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조계종측 대책위는 이날 모임에 앞서 가진 제5차 대책위원회를 통해 △사전상거·폐기 △책임자 참회·사과 △양 종단 공동으로 종단사 정리 등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이런 내용을 모임 현장에서 태고종

측 스님들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회동 초반 두 종단 스님들 간에는 고성이 오고가는 등 잠시 경직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태고종 부원장 자철 스님이 〈태고종사〉의 일부 격한 표현들로 인해 조계종 스님들이 상처를 받았다면 물러서자 조계종측 대성 스님이 〈태고종사〉로 인해 종단간의 갈등을 보이는 모습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답해 분위기는 반전됐다.

회동직후 대성·해자대책위 집행위원장 스님과 자철·수열 스님 등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모임으로 서로 입장을 좁히고 최선의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한 뿌리였던 두 종단은 앞으로 2-3차례 더 모임을 갖고 근현대사에 대한 객관적인 정리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은 5월 16일 정회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불학연구소가 종단의 정통성강화를 위한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글·사진=조용수 기자

“산중공사·부장 책임제 가동”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기자회견...종단 비전 제시

천태종이 수행 품도 진자, 산중공사 제도화, 해외포교와 복지확대에 진력하는 등 큰 변화가 예상된다.

천태종 제14대 총무원장 정산 스님(사진)은 4월 4일 서울 관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행종풍을 진작시키고, 산중공사를 제도화해서 대중 스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각 부서장들이 모든 업무를 책임지는 부장 책임 운영제를 가동하겠다고 운영 기조를 밝혔다.

정산 스님은 “종단 차원의 큰 불사나 해외포교 사업, 인사 문제 등이 생길 때마다 종회나 감사원, 인사위원회 등을 활용한 산중공사를 열어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또 “특히 가장 큰 압력이 일어날 소지가 많은 인사문제에 대해선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정책을 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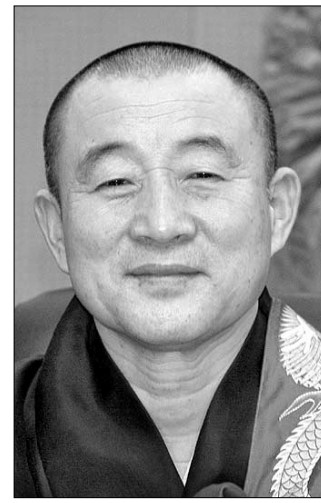
총무원의 직제도 개편된다. 정산 스님은 “교육원과 문화부, 기획실 등을 신설하는 직제 개편을 통해 종단 업무를 세분화 할 것”이라며 “현재 종현종법 개정이 마무리 되는 11월경에 총무원 조직 개편과 간부급 인사도 단행 하겠다”고 직제 개편의 의지를 표명했다.

장래문화도 변화가 예상된다. 정산 스님은 “장래예식장을 운영하거나 화장하는 신도를 위해 납골

묘를 설치하는 등 장례문화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바뀌 나갈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천태종 비구니스님들의 위상 강화에 대해서는 “그동안 비구니 스님들은 뒷전에서 각 사찰의 살림살이를 주로 맡아왔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활동하지는 않았다지만 요즘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비구니스님들이 적극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며 “산중공사를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겠지만 앞으로 비구니스님들도 본말사 주지직 소임을 맡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군중종교 파견에 대해서는 “조



계종 일면 군중특별교구장 스님이 천태종의 군중종교 파견 문제를 적극 도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자체적으로 군중종교 파견에 관한 내부규정을 4월중으로 만들어 제출하면 아마도 내년쯤이면 성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낙관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전사법 시행령 강한 규제권한 필요”

문광부, 공청회 열어

최근 확정된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에서 참가자들은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이 실질적인 법령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명령 등 강력한 규제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관광부가 4월 5일 한국일보 송현클럽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발표자로나선 김병철 변호사는 시행령 개정안이 사찰의 경제로부터 500m 이내를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강조하면서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시·도지사가 역사문화보존구역내의 부적절한 건축이나 사업을 거부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표자간의 상호 질의 토론에서 김병철 변호사는 사유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침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수년전 두 사찰이 경내지 주변에 난립한 상가들을 정비하기 위해, 사찰이 부지를 제공하고 지자체와 업자들이 공사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배진홍 사무총장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가 행정적 권한이 없지만 이해 당사자들 간의 합리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용수 기자

동화사 주지후보 허운 스님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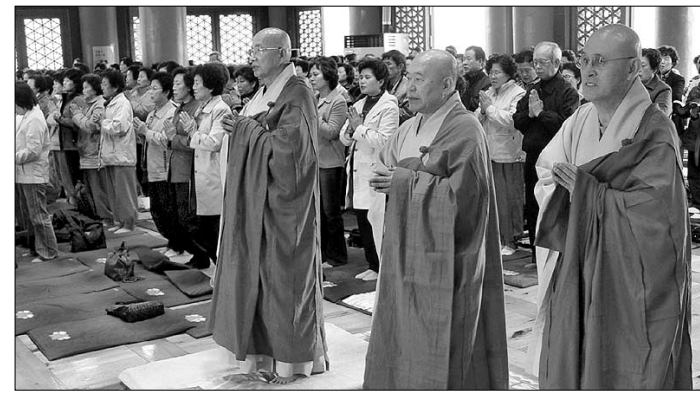
7일 산중총회서 204명 투표 71표 얻어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는 4월 7일 산중총회를 열고 새 주지 후보에 허운 스님(사진)을 선출했다. 이날 선거인단 230명 가운데 204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허운 스님이 71표를 얻어 1위로 당선됐다. 지성 스님은 59표, 보경 스님은 66표를 얻었으며 무효표가 8표였다.

허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조실 스님과 前 주지스님 그리고 교구의 어린 스님들을 잘 모시고 동화사의 아름다운 설화를 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 주지 후보 허운 스님은 성우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72년 파계사에서 일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78년 광계사에서 고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지난해 조계종 총무원 재부부장을 지냈으며, 현재 대구 은적사 주지를 맡고 있다.

배지선 기자



조계종 포교원은 지역포교활성화를 위한 순회법회를 시작했다. 사진은 4월9일 대구 동화사에서 열린 첫 순회법회 모습. 앞줄 왼쪽부터 포교원장 도영, 동화사 주지 지성, 前 포교원장 정락 스님. 사진=배지선 기자

지역포교 활성화 사부대중 ‘한똥’

동화사 신홍사서 포교전진법회

지역포교 활성화를 위한 순회법회가 4월 1일 대구 동화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뜻을 올렸다.

대구·경북 불교 활성화를 위한 포교전진법회로 봉행된 동화사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前 포교원장 정락,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 대구광역시 및 제9교구 신도회 장영관 회장, 이재운 前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9교구 산하 신도회와 신도단체 임원 및 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락 스님의 ‘지역포교 활성화를 위한 법문’과 지역불교지도자 소개, 자비의 연꽃날기 행사 등으로 진행됐다.

이어 4월 3일 속초 신홍사에서 열린 순회법회에서도 도영 스님을 비롯한 포교원 집행부 스님들과 제3교구 산하 신도회와 신도단체 임원 및 회원, 지역불교지도자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조계종 포교원이 교구와 단위사찰 및 단체에서 필요한 현장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기위해 열고 있는 순회법회는 9일 직지사, 22일 통도사 및 고운사, 27일 대전 백제불교회관, 29일 마곡사, 5월 14일 범어사, 20일 법주사 및 봉선사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남동우·배지선 기자

불자대상 공모

조계종 18일까지 접수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사회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온 불자를 격려하기 위해 ‘불기 2550(2006년) 불자대상’을 시행한다”고 3월 28일 밝혔다.

후보자 접수는 6-18일까지이며, 대상자는 추천서 및 공적사항 입증 서류를 총무원 총무부에 제출해야 한다.(02)2011-1702 www.buddhism.or.kr

조용수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6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FAX (02)737-0697 온라인서점 예시어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봉

대한불교일부선교종 총무원장 이·취임법회

나무 불·법·승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항상 부처님의 가피와 공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본종은 금번 제7대 총무원장 법철스님의 이임과 제8대 총무원장 범우스님의 취임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일 시 : 불기2550(2006)년 4월 19일 수요일 오후2시
장 소 : 서울 세종점 하림각 신관2층 다이아몬드홀(02-396-2442)

증 명 : 봉암
 법 주 : 동명 청곡 원정 현공 범달 범묘
 지도위원 : 조혜 정암 진공 범현 범교 해광 해도 운광 본자
 정인 무원 해관 보명 현각 동월 송광 청암 덕암
 정각 정법 수연 광탄 성일 만상 지정 종오 혜초
 지관 관무 명달 계전 일봉문도회 일동

봉행위원장 : 도현
 봉행위원 : 지일 현철 지혜 월연 월현
 최송식 이춘하 김 훈 고금순 고오연 고인덕
 강정희 양혜옥 김금옥 김대각 김면암 김범수

김병락 김양순 김완식 김천용 김현수 김고경 김희진 노연식
 노효순 마향숙 민영옥 박창경 박태임 변경자 서두수 선양희
 신범은 안용희 양순자 오금주 이강욱 이명재 이법화 이성위
 이순희 이지혜 이태숙 임순덕 임정심 장순옥 박순남 조방선
 주원각 최명자 최인선 최창람 허순애 임정숙 황현숙 권기주
 조민숙 김대비심 정대륜심 정수월심 김연화행 김자비행
 박대복심 박진공심 송대련화 신범희심 양대법화 옥자비행
 윤불심행 각사암신도회 신행단체일동

2006년 4월 3일
봉행위원장 도현 합장

행

주최 : 대한불교일부선교종 총무원 주관 : 총무원장 이·취임법회 봉행위원회 대한불교일부선교종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신영동 93번지 / 전화 : 02)394-9468 / 팩스 : 02)395-9468